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7,075천km ²	GDP (2008년도)	16,766 억 달러
인구 (2008년도)	141.39 백만 명	1인당GDP (2008년도)	11,803 달러
정치 체제	연방공화제	통화단위	Rouble
대외 정책	강대국의 지위회복에 주력	환율(U\$기준) (2008년도)	24.85

- 세계 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앞선 과학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임.
- 1991년 구소련 체제 붕괴이후 1998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 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불투명성,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6.4	7.7	8.1	5.6	-7.5
재정수지 / GDP	7.5	8.3	6.8	4.3	-5.4
소비자물가상승률	12.7	9.0	11.9	14.1	11.9

자료: IMF, EIU.

□ 세계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2009년 중 마이너스 성장 전망

- 러시아의 실질 GDP는 고유가, 해외 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위기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2008년 중 5.6%의 GDP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한편, 2009년에는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요 및 투자가 감소, 2000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 * 실질 GDP 전망(2009, IMF): -7.5%
- 2010년에는 유가 회복 및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실질 GDP 전망(2010, IMF): 1.5%

□ 2009년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대량의 오일달러 유입,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내수와 재정지출이 꾸준히 확대됨으로써 2005년부터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1%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08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1%를 기록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음.

- 2009년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감소, 해외 자본 유입 감소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2009년 4월 이후 재할인율을 8회에 걸쳐 3.5%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연초부터 상승세로 반전되는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상존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두자리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2009, IMF): 11.9%

- 2010년은 재정 지출이 2009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9.9%로 전망됨.

*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2010, IMF): 9.9%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2009년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

- 러시아 재정수입의 약 50%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세 수입이 차지하며, 2008년까지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 한편,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와 정부의 에너지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석유수출세 인하 조치로 재정수입이 감소,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를 적립기금(Reserve Fund)으로 충당할 예정임.

*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 현황(2009. 10월말) : 1,764억 달러 (Reserve Fund 857억 달러, National Welfare Fund 907억 달러)

- 2010년 중에도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Reserve Fund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해외 차입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임.

* 동년 중 180억불의 Sovereign Bond 발행 예정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석유, 가스)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게 됨
- 2008년 상반기까지는 고유가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2009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및 석유수출이 감소하여 인해 경상수지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
- * 에너지(석유, 가스) 산업 의존도 : 총수출의 약 65%, GDP의 20%, 재정 수입의 50%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주요 산업 육성

-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해 조선, 항공, 해운, 전력, 자동차, 나노기술 등 주요산업에 대하여 지주회사 설립, 국영기업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중임.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세계 8위의 경제대국

- 러시아는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도 1억 4천만 명에 달해 내수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2008년 중 GDP규모가 1조 6,773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임.(IMF 자료 기준, 2007년의 11위에서 3계단 상승)
- * 석유(2008년 말 현재) : 확인매장량(790억 배럴) 세계 7위, 생산(연간 4.9억 톤) 및 수출 세계 2위
- * 천연가스(2008년 말 현재) : 확인매장량(43.3조m³) 세계 1위, 생산량(연간 6,017억m³) 및 수출 세계 1위

□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한 장기개발계획 수립, 추진

- 러시아 정부는 2008년 2월, 2020년까지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장기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20 ; Strategy-2020)"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 동 계획의 주요 골자는 향후 10년 동안 총 1조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노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임

□ 오일머니 적립을 통해 재정적자 충당

- 에너지가 급락에 따른 경제충격에 대비코자 2002년부터 석유, 가스 수출세 수입과 연방예산 잉여금으로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을 적립하여 옴.
- 2008년 2월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을 적립기금(Reserve Fund)과 국부기금(National Welfare Fund)으로 분리, 적립기금은 대외채무 상환과 재정 부족에 충당하고, 국부기금은 정부 개혁프로그램에 사용키로 계획.
- *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 현황(2009. 10월말) : 1,764억 달러 (Reserve Fund 857억 달러, National Welfare Fund 907억 달러)
- 다만, Reserve Fund는 2010년 중 고갈될 전망임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해외 차입을 계획하고 있음.

□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 지속

- 세계 금융위기 발생 직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영은행을 통한 기업 외채상환자금 지원 500억 달러, 120개 은행 앞 무담보 유동성 지원 670억 달러, 국영은행 앞 장기자금 대출 350억 달러 등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음.

- 세계 금융위기 초기 루블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당시 외환보유고의 1/3 가량을 소진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자, 2008년 11월부터는 루블화가치의 완만한 하락을 용인하였으며, 루블화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까지 약 25%가 절하되었음.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따라 루블화는 2009년 2월 이후 강세로 반전되었음.
* 루블화가치 변동(Rub/U\$1) : 24.5769(2008. 8월말) → 35.4146(2009.1월말) → 29.0488(2009. 10월말)
- 러시아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9회에 걸쳐 재할인율을 총 3.5% 인하하였음.

□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대책 강구

-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를 가져옴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24%→20%), 부동산 취득세 면제, 에너지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석유수출세 인하, 실업급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함.

3. 대외거래

<표 3>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83,348	94,686	77,012	102,399	42,075
경 상 수 지 / G D P	10.9	9.6	6.0	6.1	3.2
상 품 수 지	118,266	139,269	130,915	179,742	175,683
(수 출)	(243,569)	(303,550)	(354,401)	(471,603)	(372,521)
(수 입)	(125,303)	(164,281)	(223,486)	(291,861)	(196,838)
외 환 보 유 액	182,240	303,732	476,391	427,080	434,428
총 외 채 잔 액	229,911	250,480	370,172	407,197	369,247
총 외 채 잔액 / G D P	30.0	31.7	36.5	28.8	37.1
D . S . R .	14.7	19.6	25.3	26.6	..

자료: EIU, IMF.

□ 2009년 총수출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0% 이상 축소될 전망

- 총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2008년까지는 매년 연 20~30%대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해외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여 총수출은 2008년(4,716억 달러) 대비 30% 이상 감소한 3,72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우랄산 유가 추이(U\$/배럴): 131.29(2008.6월말) → 42.9(2009.1월말) → 76.31(2009. 10월말)

* 2009년 국제유가 전망(U\$/배럴): IMF: 60.5, EIA:62.0

□ 2009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 급감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전망

- 2008년까지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된데 힘입어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해 왔음 (2008년 경상수지: 1,024억 달러).
-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출 감소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가 2008년(1,797억 달러)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경상수지는 GDP 대비 3.2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 위기로 대폭 감소한 이후 유가 상승에 힘입어 회복 중

- 2002년 441억불에 불과하던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유가의 지속 상승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2008년 8월초에는 5,9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 8월 이후 그루지야와의 전쟁 발발 및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및 은행의 외채상환 지원을 위해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함으로써 2008년 하반기 중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2008년 8월초 5,980억 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2009년 1월말 현재 3,869억 달러로 최고치 대비 35% 감소하였으나, 2009년 초부터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하고 루블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꾸준히 회복되어 2009년 10월말 현재 4,34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신규 차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총외채잔액은 소폭 감소할 전망

- 2008년 초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영향으로 러시아 기업 및 은행의 국제금융시장 신규 차입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해외차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따라 2009년 중 총외채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수출과 GDP규모는 급감함으로써 총외채잔액/총수출(%), 총외채잔액/GDP(%)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동향

□ 원만한 권력이양으로 정치경제적 연속성 유지

- 2008년 5월 푸틴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푸틴 자신은 총리로 취임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 당초 푸틴에 비해 지지도가 낮았던 메드베데프가 최근 러시아 과거 정부 및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을 비난하는 공격적인 발언으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푸틴과의 지지도 격차도 좁혀지는 추세임. 2012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푸틴 총리가 최근 출마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재선을 노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 집권여당의 의회 장악으로 정국 안정

- 2007.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당시 푸틴 대통령이 이끌었던 통합러시아당 (United Russia)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전체의석의 70%(315석)를 차지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어 있음.

□ 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및 의원 임기 연장

- 2008년 12월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 두마(하원) 의원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사회 동향

□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 확대 및 실업률 다소 높은 수준

- 단기의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급속히 늘어났으나,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부 계절적인 요인에 힘입어 실업률은 2009년 2월을 고점으로 하여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실업률 : 5.4%(2008. 5월말) → 9.5%(2009. 2월말) → 7.9%(2009. 8월말)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은 야기되지 않을 전망

- 러시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 개혁 및 시베리아, 극동 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장기개발프로그램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

* 2013년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 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 추진중

-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에는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금, 공공부문 급여 및 실업자 보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줄이지 않을 계획임.
- 경제위기 이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시위가 사회불안요인으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강력한 치안유지 노력으로 사회불안 감소

- 2000년대초 푸틴 전 대통령의 체첸반군 강제진압 이후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치안유지 노력으로 체첸 반군에 의한 사회불안요인은 크게 감소됨.
- 2008년 8월 발생한 그루지야와의 전쟁으로 분쟁지역인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자치공화국내 치안불안 요소가 상존하나 이는 국지적 불안에 그칠 전망이다.

3. 국제관계

□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 개선 기대

- 미국 오바마 신정부가 폴란드, 체코에 대한 전략미사일방어기지(MD) 구축 계획 재검토를 시사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가 환영을 표시함에 따라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 냉각되었던 양국간 관계 개선이 향후 기대됨.

□ CIS국가에서의 영향력 회복 모색

- 구 소련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를 중심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음.

□ 서방과의 대립은 지속

-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자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NATO 가입 및 폴란드, 체코에 대한 전략미사일방어기지(MD) 구축 문제로 서방측과 대립하고 있음.

- 2008년 8월 그루지야 침공 및 분쟁지역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 대한 독립국가 인정 등으로 한때 서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도 하였음.
- 2006년에 이어, 2009년 초 다시 발생한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으로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안전한 가스공급자로서의 신뢰가 저하되었음. 현재 유럽에 가스 수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경기침체로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가스 대금 관련 분쟁이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스 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IV. 국제신인도

1.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하향 조정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외환보유고의 급감, 유가의 하락 및 대규모 자본유출 등을 이유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OECD는 2009년 10월 러시아의 국별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하였음.
- S&P('08. 12월), Fitch('09. 2월)는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었으며, Moodys('08. 12월)는 기존 등급을 유지하되 전망(outlook)을 Positive에서 Stable로 변경함.

□ 현재 투자적격등급(Investment Grade) 유지

-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투자적격등급이 유지되고 있음.

* 주요 평가기관의 러시아 국별신용등급 현황

- OECD : 3등급 ('08. 1) → 3등급 ('09. 1) → 4등급 ('09. 10)
- Moody's : Baa2 ('05. 10) → Baa1 ('08. 7)
- S&P : BBB ('05. 12) → BBB+ ('06. 9) → BBB ('08. 12)
- Fitch : BBB ('05. 8) → BBB+ ('06. 7) → BBB ('09. 2)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민간, 공공부문 제한적 인수 가능
- ECGD : 단기 및 중기 정상 인수
- Hermes : 단기 인수 가능, 제약조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 태도 및 능력

□ 정부채무 조기상환

- 2005년 1월 IMF차관 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였으며, 2005~06년 2년에 걸쳐 파리클럽채무 430억 달러도 전액 조기 상환하였음.

□ 경제위기 이후 급감한 외환보유액은 유가 상승으로 회복 추세이며, 총 외채도 소폭 감소할 전망

- 2008년 하반기 중 루블화 안정과 기업 및 은행의 대외채무 상환 지원을 위해 대량의 보유 외환을 투입함으로써 외환보유고가 6개월 만에 1/3 가량 감소되었으나, 2009년중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회복중이며, 2009년 10월말 현재 4,34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8년까지는 기업 및 은행의 해외차입 증가로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9년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기업 및 은행의 해외차입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9. 30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90년), 이중과세방지협정, 기본관계조약(92년), 군사기술, 방산/군사협력협정(97년), 나호트카 한러공단설립 협정(99.5월)

□ 교역규모(2008년): 180.9억 달러(수출 97.5억불, 수입 83.4억 달러)

- 2008년중 대 러시아 수출 및 수입이 각각 20.5%, 19.5% 증가하여 전체 교역량이 전년대비 약 20% 증가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교역 비중 : 수출 2.3%(8위), 수입 1.9%(14위)

V. 종합의견

- 경기 침체에 따라 2000년 이후 최초로 2009년 중 실질 GDP의 마이너스 성장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발생이 전망되며, 세계 에너지 수요 하락으로 야기된 수출 감소에 따라 D.S.R.이 증가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었음.
- 원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GDP, 정부수입 및 총수출에서 에너지 수출의 비중이 높아 유가의 향방에 경제가 좌우되는 구조임. 2008년 상반기까지의 유가 상승 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유가가 급락하자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기도 하였음. 2009년 중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러시아에 긍정적인 신호이나, 은행 산업의 부실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여 경제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하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도 유지되고 있음. 전략미사일방어기지 구축 문제 등으로 서방과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기대됨.
- 2008년 하반기 중 외환보유고 급감, 유가 하락, 대규모 자본 유출 등을 이유로 세계 주요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 적격등급이 유지되고 있음. 2009년 중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함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러시아 경제는 유가의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책임조사역 서밀희(☎02-3779-6653)

E-mail : mhseo@koreaexim.go.kr